

‘오락가락’ 여수 시내버스 준공영제

市, 예산·행정력 낭비 사업 정리위해 폐지키로…정책 신뢰성 논란

여수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책 일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동안 같지 않은 행보를 거듭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폐지키로 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논란을 사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 폐지 등 조정을 위한 시정 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3가지 사업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폐지된 사업 중에는 ▲야간경

관조사업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여수 국제 불꽃축제 ▲내 가먼저 First 운동 등과 함께 그동안 실시여부를 놓고 시의 입장이 바뀌어 혼란을 빚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포함됐다.

당초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오현섭 당시 현직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김종석 현시장이 민선 3기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6월 사용자 및 노조와 ‘2008년 7월시행’을 약속한 합의서까지 작성한 사안이다. 하지만 김 시장이 지

난 2006년 선거에서 낙선, 약속이행이 불투명해졌으나 당선된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실시시키로 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 했지만, 사용자 등과 협의가 자연히 되면서 결국 해를 넘겨 현재 이르렀다. 한동안 잠잠하던 준공영제는 김 시장이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월 5일 시내버스 노조가 ‘공영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16일간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시 부각됐다.

김 시장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후 기자회견에서 “준공영제 시행의 전

제조건은 모든 여건이 충족되고 시와 시의회, 당사자, 시민 등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당초 입장을 번복, 논란을 끝냈다.

이와 관련 모 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은 “준공영제에 대해 그때그때 변명만 해온 시가 이번에는 말한마디 없이 아예 준공영제를 폐기해버렸다”며 “파업 등 단체행동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2012 여수박람회 때문에 준공영제 사업을 폐지하게 됐지만 영구히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두동갱이·도리뱅뱅·지지깽이…구례 잔수농악

“지자체가 전통성 보전·전승해야”

중요 무형문화재 학술 세미나

지난 10월 중요무형문화재(제 11-바호)로 지정된 ‘구례 잔수농악’(사진)의 보존과 선양을 위해 전승주체의 원형보존 의지와 함께 전수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연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고려대 산진아트홀에서 ‘구례 잔수농악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중요 무형문화재 대부분이 지정 당시와 다르게 ‘지역적 다양성’이 사라져 유사한 양식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성의 상실은 곧 존재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만큼 잔수농악은 ‘지역성’을 잊지 말고 최고 수준의 연주·연기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u@

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보형 한국 고을반연구회 회장은 “잔수마을에 전승되는 여러 세대의 전수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등이 다른 고장 세시농악에서 보기 힘든 원초적 문화특성을 잘 지니고 있다”며 “평택농악에서 보기 힘든 원초적 문화특성을 잘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식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은 “잔수농악은 호남좌도농악의 기본적 음악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두동갱이, 도리뱅뱅, 지지깽이 등 독특한 가락을 갖고 있다”며 “농악과 구성원이 비슷해 마을주민에게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적 기량과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느 미술농악에서는 찾기 힘든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구례 잔수농악을 비롯해 ▲경남 진주 삼전포농악 ▲전북 이리농악 ▲임실 필봉농악 ▲경기도 평택농악 ▲강원도 강릉농악 등 다섯 농악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전통적인 지역적 특징 전승해

/동부취재본부=이진혁기자 lk5826@

야=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각 지역의 농악 가락이 서로 뒤섞여 지역성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구례 잔수농악은 ‘전통적인 지역적 특징’을 충실히 전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구례 잔수농악의 발전방안으로 전승주체의 원형보존 의지와 ▲공연기획의 확대 ▲전수교육의 강화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 ▲전승조직의 체계화와 구성원의 인화(人和)를 꼽았다.

나 교수는 “구례 잔수농악이 외향적 발전을 거듭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마을주민·군민 스스로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지니는 것”이라며 “구례군은 잔수농악의 보존과 전승·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 잔수농악 보존회(회장 김대진)는 8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인정서를 수여받고 본격적으로 잔수농악 전승활동을 펼치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

/동부취재본부=김은증기자 ejkim@

대형트리·은하수 터널…

보성서 은빛 연말연시를

17일부터 차밭 빛 축제



보성군은 오는 17일 오후 5시 30분 회천면 영천리 복재 및 다향각 특설무대에서 새해희망을 기원하는 대형트리 점등식과 함께 ‘보성차밭 빛축제’를 개최한다.

점등행사는 대형트리 등 빛축제 점등과 함께 헤망 메시지 전달, TV 축하공연, 불꽃쇼 등이 펼쳐진다.

빛축제는 대형트리를 비롯해 은하수 터널, 복재~다향각 경관조명, 포토존, 차밭 빛의 거리 등 다양한 불거리와 소망카드 달기 등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지난 2000년 ‘밀레니엄 트리’로 세계 기네스북

에 등록된 차밭 대형트리는 지난해보다 더 화려하고 큰 규모인 높이 130m·폭 180m 규모이다.

대형트리는 120만 개의 혼합색상 은하수 전구와 LED(액정표시장치) 조명을 이용해 눈꽃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빛축제는 내년 2월 6일까지 52일간 계속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면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광양 응급대처 빨라진다

공간정보 구호활동 활용…시스템 첫 구축

광양시와 광양소방서가 사고·화재 시 구난을 위한 공간(위치)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전국 처음으로 구축,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소방서가 보유한 공간(위치)정보망에, 시의 자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개념이다.

시 자리정보시스템에는 ▲자연마을 ▲공간(마을·건물)간 (최단)거리 ▲독거노인 현황 ▲대형재난 발생 예상시설(건물)물 ▲소화전 위치 등 구난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

돼, 관련 검색어에 대한 클릭 한번에 지도에 관련 내용이 그대로 뜬다. 이 밖에도 공사나 파손 등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을 쉽게 확인,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구난차량 가운데 ‘산촌 문화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산촌 문화회관은 76m(23평) 규모의 디목적 한옥건물로 산촌 문화체육 공간은 물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복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산촌문화회관과 함께 건립된 49.6m(15평) 규모의 산촌 문화센터 3동은 산촌 체험활동에 나선 가족들의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촌 생태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는 광성군 죽곡면 유품마을에 ‘산촌 문화센터’가 세워졌다. 광성군은 지난 6일 죽곡면 유품마을 주민과 출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촌 문화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산촌 문화회관은 76m(23평) 규모의 디목적 한옥건물로 산촌 문화체육 공간은 물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복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유품마을 주민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안수경기자 70su@

곡성 유봉마을 ‘산촌 문화센터’ 준공

숙박시설로 사용돼 연간 3000만원의 숙박비 수입과 함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 판매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유봉생태마을은 그동안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촌 체험센터 3동과 산촌 문화회관 건립을 비롯해 소득작목인 청개·매화나무 식재, 도로 개설 등을 추진했다.

특히 유품마을 주민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만 생태지도 만들기’ 장관 표창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의 ‘미션체험’을 통한 순천만 에코-맵(Eco-Map) 만들기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최근 여성가족부 주최의 2010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우수 참여자 기관·선정 사업에서 대상(여성가족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만 에코-맵 만들기’는 현장감 있는 탐구 활동과 학부모·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순천만의 역사, 철새 분포 및 희귀종 보호 등·식물 서식지 등에 관한 이론 교육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현장에서 실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관한 탐구를 오리엔티어링 형식의 미션체험 활동으로 진행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은증기자 ejkim@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 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 전문가 무료 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 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 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